

IBKS Spot Comment

제약/바이오

정이수 CFA

02) 6915-5677

[한미약품]

3개월 만에 두 번째 조 단위 계약

차세대 비만 치료제 HM17321, 3.2조 원 규모 기술이전

한미약품은 8월 24일 로슈 그룹 자회사 제넨텍에 지속형 UCN2(Urocortin-2) 유사체 HM17321을 기술이전했다. 총 계약 규모는 23억 500만 달러(약 3조 1,892억 원)이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1억 9,000만 달러(약 2,629억 원)다. 발표 당일 주가는 29.96% 상승한 54만 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약 1.6조 원 증가했다. 시장은 총 기술이전 계약 규모의 절반가량을 즉시 반영한 셈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1일 일라이 릴리와 단장증후군 치료제를 총 12억 6,000만 달러(약 1조 8,973억 원)에 기술이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사된 두 번째 조 단위 계약이다.

로슈 비만 파이프라인과 높은 병용 시너지 기대

이번 계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HM17321이 아직 임상 1상 단계임에도 2,60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인체 유효성이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전부터 제넨텍이 First-in-Class(계열 내 최초) 기전과 향후 병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HM17321은 CRF2(코르티코트로핀 방출인자 수용체-2)를 활성화해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량 증가를 유도하는 UCN2 유사체다. 로슈는 GLP-1/GIP 이중작용제 CT-388, 경구 GLP-1 CT-996,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 Petrelintide 등 다양한 비만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HM17321은 이들과 기전이 겹치지 않으면서 비임상에서 단독 투여뿐 아니라 GLP-1 계열과의 병용에서도 체중 감량과 근육 보존 효과를 확인했다. 따라서 로슈가 기존 인크레틴 파이프라인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병용 후보물질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은 2027년 3월 종료 예정으로, 향후 임상 데이터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익 레벨 상향, 차기 기술이전 기대감 확대

첫째, 기술료 유입으로 이익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일라이 릴리와 제넨텍에 기술이전한 두 계약의 총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고, 확정 계약금만 약 3,758억 원이다. 이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2,578억 원)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계약금 유입과 회계 인식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하반기 기술료 반영으로 이익 레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HM17321은 한미사이언스와의 인적분할 이후 개발된 파이프라인으로 별도의 수익 배분 없이 한미약품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후속 파이프라인의 가치 재평가도 기대한다. HM17321의 대규모 기술이전으로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개발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재 임상 2상 중인 GLP-1·GIP·글루카곤 삼중 작용제 HM15275 역시 차기 기술이전 후보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